

# 드론에 뱅 뚫린 영광 한빛원전 상공

### 2017년 이어 지난 29일 출몰...원전 측 신고했지만 조종자 못 찾아 공중 방호체계 없어 폭탄 테러 위협 뎀 속수무책...주민들 대책 촉구

영광 한빛원전 상공에 최근 두 차례나 드론이 출몰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전 주변은 국가보안시설 최고등급으로 분류돼 있지만, 드론 등에 대한 방호 체계는 사실상 전무해 드론을 활용한 폭탄 테러 등에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어 인근 주민들이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2일 영광 한빛원자력본부와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8시 40분경 한빛원전 인근 가마미 해수욕장-계마항 상공에서 드론으로 추정되는 미확인 비행물체 1대가 발견됐다. 드론은 20여분간 비행 후 하강 방향 쪽으로 이동한 뒤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은 국가보안시설 최고등급인 '가'급

으로 분류돼 항공안전법에 의해 원전 주변 반경 18km 안, 고도 3km에서는 비행체 운행이 전면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하고 드론을 띄워 원전을 무단 촬영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당시 원전 근무자들은 드론 추정 물체가 포착되자 중앙 통제실에 보고했고, 원전 측은 곧바로 군당국과 경찰에 신고를 했다.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영광 흥농삼거리 교동을 통제하고 검문을 실시했지만, 드론 소지자나 조종자를 찾지 못했다. 한빛원전 인근 드론 비행은 지난 2017년에도 한 차례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

이 한국항공공사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영광을 포함해 전국에 분포된 원전 일대 비행금지구역에서 모두 6차례나 비행체가 출몰했다. 2017년 4월 20일에는 한빛원전과 8km 떨어진 영광 백수읍에서 무단으로 드론을 날리던 조종자가 적발돼 경찰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부산시 기장군에 있는 고리원전에서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지난달 13일까지 4차례 드론 비행이 확인됐다. 이번 영광 사건 1건을 비롯한 3건은 조종자와 비행체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원전 상공 드론 출몰이 반복되고 있지만 정부는 드론 식별이나 격추 장비조차 없어 원전 인근 지역민의 불안도 가중되고 있다. 지난달 21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드론을 격추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 중이다. 아직 미비한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한빛원전 영광공동행동 관계자는 "가능

성은 낮지만 테러 의도를 가지고 드론을 조종한다면 국가적 재난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는 하루빨리 드론 관련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경찰은 한빛원전과 함께 원전 주변 비행금지구역 홍보, 일제 점검을 통해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드론 등의 비행금지 안내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해 원전 주변이 비행금지 구역임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최근 취미나 레저용으로 드론을 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전 주변에서 드론을 날릴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전장군 한빛원전 홍보팀장은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드론 방호장비(탐지·식별·대응)의 검증이 완료되면 즉시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 조영대 신부 "역사 부정하는 전두환이 파렴치 탄약관리 군인 "헬기에 실어준 탄약소모 확인"

### 전두환 재판 열려

회고록을 낸 전두환씨를 사자(死者)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고 조비오 신부의 조가 조영대 신부는 2일 전씨를 향해 "정확한 증거와 증언이 나오고 있는데도 (헬기 사격을) 부인하는 태도야말로 파렴치한 태도"라고 비난했다. 이날 오후 전씨의 사자 명예훼손 사건 재판 증인으로 광주지법에 출석한 조 신부는 취재진과 만나 "조비오 신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침묵을 깨고 5·18 헬기 사격 목적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신부는 "고인은 가족 모임이나 미사 때 5·18 헬기 사격에 대해 종종 언급했고, 관련한 이야기를 나눌 기회도 있었다"며 "진상조사를 걱정하며 한숨을 쉬 시던 모습이 아직 기억난다. 사제로서 양심선언을 했던 그의 증언을 확인한다"고 강조했다.

다. 조 신부는 특히 전씨가 헬기 사격을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회고록에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파렴치함이라는 단어는 사제단 전체에 대한 모독이자 광주시민들에 대한 모독"이라며 "역사적 왜곡과 망언 앞에 침묵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조 신부와 함께 증인으로 나온 당시 육군 31항공단 탄약 관리 군인 출신 최종호 예비역 하사도 헬기사격을 뒷받침하는 증언을 이어갔다. 최씨는 "당시에 제가 탄약을 내줬으니 (상황을) 잘 알고 있다"며 80년 5월 22일 광주로 출격했던 헬기에 실어준 탄약이 소모돼 있는걸 확인하고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기존 증언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탄약이 소모됐는데) 사격을 안 했다는 건 이상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한편 전씨는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2017년 4월 재판 회고록에서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잇단 공극 발견' 한빛 6호기 재가동 허용...지역민들 불안

### 원안위는 "안전성 확인"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정기점검 중 공극이 확인된 한빛원전 6호기에 대한 재가동을 허용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역민들 사이에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원안위는 2일 "지난 5월 30일부터 정기

검사를 진행한 한빛 6호기의 임계(정상 출력에 도달하기 위해 핵분열을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것)를 이날 허용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이번 점검에서 총 88개 항목에 대해 검사한 결과 원자로 운전이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원안위는 원

자로 가동 후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9개)를 통해 6호기의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격납건물 내부철판(CLP)에 대해서는 기준(5.4mm)보다 얇은 부분은 없었으며, 과거 철사 등이 발견됐던 중기발생기는 내부 이물질들을 모두 제거했다고 설명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원안위는 새롭게 발견된 공극에 대해 보수 후 격납건물 종합누설 시험을 통해 건전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잇단 공극 발견 소식에 지역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한 주민은 "한빛원전 원자로 중 가장 늦게 만들어진 6호기마저 공극이 계속 발견되면 안심할 수 없다"며 "정부는 신뢰가 가는 대책을 수립해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해달라"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 국제 보이스포싱 뿌리뽑기 전담수사팀 뜬다

### 경찰, 3개월간 집중 단속

경찰이 외국에 근거지를 두고 국내에서 활개 치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을 뿌리뽑기 위한 전담팀을 만든다. 경찰청은 "서울·부산·인천·경기남부경찰청에 '국제 보이스포싱 전담수사팀'을, 광주·전남 등 나머지 13개 지방청에는 '국제 보이스포싱 전담 수사 태스크포스(TF)팀' 꾸려 11월 말까지 특별단속을 나선다"고 2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보이스포싱 범죄는 3만4132건으로 전년보다

41%정도 늘었다. 이로 인한 보이스포싱 피해 추산액도 4040여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64%나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경찰이 검거한 보이스포싱 조직원도 2만9952명으로 전년 대비 48% 늘었다. 하지만 보이스포싱 조직은 대개 중국이나 필리핀 등에 콜센터를 두고 국제전화로 이용해 범행하기 때문에 검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해외 거점 보이스포싱 조직에 대한 정보로 강화하고 외국 경찰과의 특화된 네트워크를 활용해 보이스포싱 조직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영양사-영양교사, 상담사-상담교사 인권위 "임금격차 해소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광주·전남 등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소속 학교에서 급식과 상담업무에 담당하는 영양사와 전문상담사의 임금이 각각 영양교사와 상담교사에 비해 현저히 낮아 격차를 줄이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교육공무직 영양사는 영양교사가 하는 식품안전 업무와 영양·식생활 교육을 진행하지는 못해도 학교급식 업무라는 공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국 공립학교 위클래스 전문상담사 역시 전문 상담교사의 창의적 체험활동 등은 진행할 수 없지만 학교 내 부직을 학생을 상담하는 등 공통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영양사와 전문상담사 모두 영양교사, 상담교사에 비해 급여총액이 각각 53.8~78.7%, 59~85%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교육부 장관과 해당 시도 교육감에게 "비교집단 간 현저한 임금 격차를 줄여가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의견을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부채만들기 체험 행사 호남대 공작아카데미는 최근 나주 공공도서관에서 나주 지역 수강생과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부채 만들기 및 중국 만두만들기 행사를 가졌다.

# 원룸 주차장 외제차에 건축 폐기물 투기...수리비만 700만원



○·광주 한 원룸 주차장에 있는 외제차에 건축 폐기물이 투기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2일 광주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김모(33)씨는 지난 27일 자정경 광주시 북구 유동동의 한 원룸 주차장에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주차하고 귀가했는데, 다음 날 오후 1시경 시멘트나 페인트로 추정 되는 회색 물질이 뿌려져 있는 것을 발

견, 신고했다는 것. ○·김씨는 세차를 해도 회색물질이 벗겨지지 않아 정비소에서 맡겼더니 700만 원 정도의 수리비가 청구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 관계자는 "해당 장소가 CCTV가 없는 사각지대라 용의자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원룸 거주자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거주민을 상대로 탐문 조사 등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hb@kwangju.co.kr

#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역사 010-6211-4585"

### 부동산 추천 물건

- 토지** 전북 순창군 팔덕면 덕천리 (계획관리지역) 토지 : 3834㎡(1159.78평) 매매가 2억9천만원 강천산휴게소,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을 인근, 투자기치 좋음.
- 토지** 광주 동구 지산동 (자연녹지지역) 토지 : 1948㎡(589.27평), 건물 : 255.61㎡(77.32평) 매매가 26억5천만원 지산유원지 카페거리 조성가능.
- 건물** 광주 서구 치평동 (중심상업지역) 토지 : 434.44㎡(131.4평) 건물 : 2536.91㎡(767.42평) 지하층 지상7층 매매가 : 55억 상무지구 이마트 인근, 상권최상, 수익률최상.
- 건물** 광주 광산구 월곡동 (준주거지역) 토지 : 1686.5㎡(510평) 건물 : 3000.8㎡(907.74평) 지상2층 매매가 : 45억 아파트밀집지역, 중심상권.
- 건물** 광주 광산구 우산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623.8㎡(188.7평) 건물 : 1642.56㎡(496.87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 : 32억 현 사우나 운영중, 세계수영대회 선수촌아파트 옆.
- 병원** 광주 광산구 삼계동 (계획관리지역) 토지 : 4556㎡(1378평) 건물 : 2766.44㎡(836.844평) 지하층 지상3층 매매가 : 40억 현 요양원 운영중, 빛그린국가산업단지 인근.
- 병원** 광주 광산구 신가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900㎡(272평) 건물 : 1900㎡(547평) 지상6층 매매가 : 36억 전시광고효과 좋음, 신가재개발부근, 투자적합.

"상무지구 · 법원 앞 수익률,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 경매 추천 물건

- 근린시설** 전남 목포시 명륜동 토지 1131㎡(342.128평) 건물 : 7617.71㎡(2304.367평) 지하3층 지상8층 감정가 : 54억6천5백만원 최저가 : (70%) 38억2천5백5십만원
- 근린주택** 전남 장성군 진원면 산정리 토지 : 224㎡(67.8평) 건물 : 264.27㎡(79.9평) 지상2층 감정가 : 4억6천2백만원 최저가 : (70%) 3억2천3백5십만원
- 다가구(원룸)** 전남 화순군 동면 백용리 토지 : 1582㎡(478.6평) 건물 : 298.92㎡(90.4평) 창고, 공장, 근린시설 적합 감정가 : 3억6천1백만원 최저가 : (56%) 2억 2백2십만원
- 다가구(원룸)** 광주 북구 풍향동 767 토지 : 227㎡(68.7평) 건물 : 749.02㎡(226.6평) 지하층지상3층 감정가 : 6억7천7백만원 최저가 : (70%) 4억7천4백만원
- 주택** 광주 남구 백운동 토지 : 225.5㎡(68.214평) 건물 : 243.77㎡(73.74평) 감정가 : 3억1백3십만원 최저가 : 3억1백3십만원
- 아파트** 광주 서구 금호동 쌍용에가 55평형 감정가 : 8억3천5백만원 최저가 : (70%) 5억8천4백5십만원
- 아파트** 광주 서구 풍암동 에스케이이유 56평형 감정가 : 8억2천만원 최저가 : (70%) 5억7천4백만원
- 오피스텔** 광주 서구 치평동 로잔티움파크 78평형 감정가 : 4억4천1백만원 최저가 : (70%) 3억 8백7십만원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광주·전남 10~200억대 건물, 병원 다량보유 / 매매·임대·급매 전문/ 경·공매 전문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